

# 시카고 바하이 教會를 보고와서

禹 達 亨 우달형건축설계사무소

진정한 聖殿은 바로 神의 말씀이다, 온 인류가 그 말씀에 돌아서야 하며, 그 말씀이 온 인류를 爲한 統一의 中心이 되기 때문이다. ……聖殿들은 神의 統一시키는 힘의 상징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때에 ……津法이 그들을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고 그 津法이 그들을 하나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새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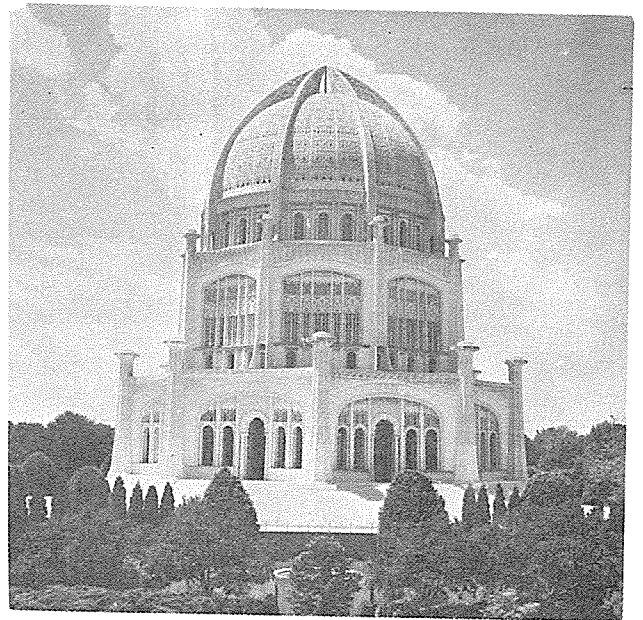
간단히 말하여, 성전들과 예배 처소의 본래의 목적은 단지 통일을 목적한다; 각양 각색의 사람들 곧 人種이 다르고 才能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 一致가 그들 사이에 있음을 보여주기 爲하여 함께 모이는 만남의 場所인 것이다.

## 예 배 당(The House Of Worshig)

윌미트(Wilmette)에 있는 바하이 예배당이 1953년 공공 사용을 위해 봉헌된 이래로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찬란한 건축양식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그곳을 둘러싸고있는 안온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왔다.

그 예배당은 이들 300만의 방문객들을 위해, 그리고 장차 여기를 방문할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 세워졌다. 이것과 같은 예배 처소들은 바하이 信仰의 最初의 기록들에서 이미 예상 되었었다. 그 처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드는 모든 종교와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에 局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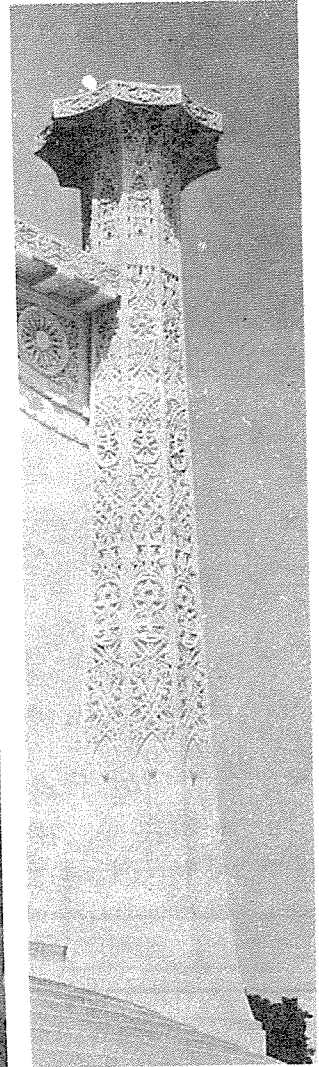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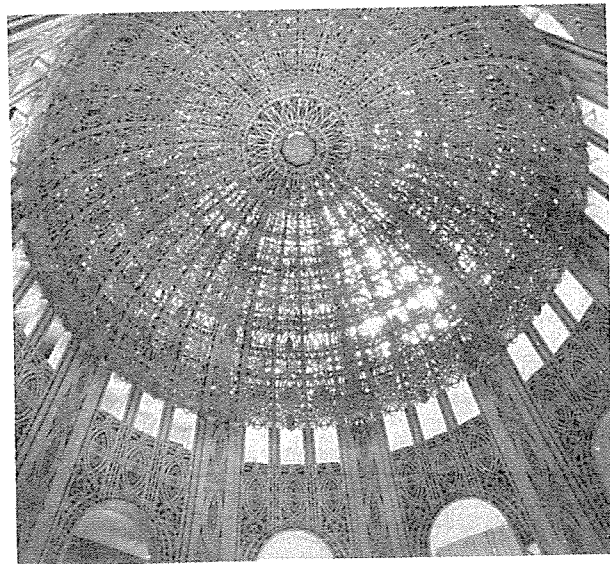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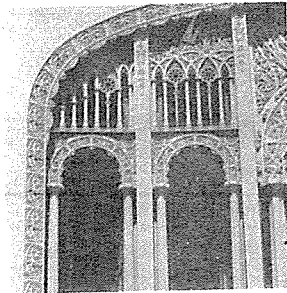
세련된 祭式儀式들은 이 예배당에서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거기엔 강단도 없고 설교도 없다. 그리고 바하이 信仰에는 성직자도 없다.



예배는 세계의 登衣된 危教들에서 나온 교도문들로서 이루어진다. 바하이의 견해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 자신의 芸的 進歩에 책임이 있으므로, 예배당 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個人的인 예배와 명상이다.

이 예배당이 비록 아무리 아름답다고는 할지라도 그곳은 세속적 관심과는 동떨어진 天上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조만간 고아원, 병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소, 지체 불구자들의 안식처, 대학, 도서관 그리고 여인숙과 같은 사회 봉사 기관을 포함할 복합체의 중심체이다. 이들 구제기관들 중 최초의 것은 노인들을 위한 바하이 양로원으로서 1959년 이래로 예배당 가까운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예배당은 1921년에 짓기 시작했다. 그 계획의 기금은 바하이로부터만 받았다. 이 건물의 완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건물은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 原里에 대한 의뢰의 표현이기도 하다 :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하나가 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원리이다.



### 설 계 (The Design)

서방세계에 있어서 최초의 바하이 예배당을 위한 계획은 1903년 시카코의 소수 바하이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카코에 미국의 바하이 공동체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1894년이였다.

많은 건축가들이 자기들에게 제안된 이 예배당을 위한 설계들을 제시했다. 1920년에 최종 선택이 있기 직전에 모집된 설계도들이 스미드소니아 협회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건축가 루이스 부르조아가 가장 뛰어난 제안을 제시했는데 그는 파리에 있는 Ecole Des Beaux Arts에서 공부했었다. 그의 설계도 - 완성된 예배당으로 보여지는 북미 전역을 걸쳐 바하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49명의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것이였다.

부르조아는 1909년 바하이 예배당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고 자기가 만족할만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8년 동안 고심했다. 1917년에야 드디어 설계를 시작했는데, 그의 말대로 그는 灵感을 가지고 鐘모양의 성전을 설계한 것이다. 그는 紙面 위에 그 생각을 적절히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석고 모형 (Plaster model)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우선 그는 그 매개물을 사용하는 것을 익혀야 했다. 3년동안 그는 빈곤 가운데서 살았으며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한 財政은 그가 뒷뜰에서 가꾼 꽃을 팔아서 충당했다.

부르조아씨는 그의 한 친구에게 자기의 作品에 對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12년전에 나는 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 성전모형과 설계도가 만들어졌지요), 그때 나는 내 집에 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형태는 하나의 큰 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 정원이 어째서 鐘모양이냐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이 鐘은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樂器입니다 : 그것은 아주 먼곳까지 소리를 운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 따위도 운반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큰 돔을 달았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바하이의 세계에서 돔모양으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돔입니다. 미국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종소리를 들을까요?"

### 건 축 (The Construction)

부르조아의 모형이 1921년에 전시되었을 때 뉴욕 타임스紙는 이렇게 論評했다. "미국인들은 한 예술가가 국가들의 종교연맹의 의사를 이 건물 속에 이루어 놓은것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조용히 연구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많은 건축가들과 기술자들은 그것이 과연 건축될 수 있을지를 의심했다. 문제는 성전의 정교한 장식의 끈모양(Lacy Patterns)을 옮길 견고하고 경제적인 材料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알미늄 合金이 사용되었으나 그것은 작업에 부적당함이 드러났다. 화강석, 대리석 그리고 다른 돌들과 마찬가지로 테라코터(Terra-Cotta)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모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마침내 유명한 건축 조각가인 존 어얼리(John Earley)가 석영과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混合物을 견고하고 경제적인 장식 형태로 구조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조각가들이 진흙을 부르조아의 그림에서 그 모형을 본뜬 큰 널판을 봤다. 그림들 중의 얼마는 109피트 길이의 종이장들위에 있었다. 다음에 세 단계를 더 거쳐서 기하학적 형태들과 종교적 상징들이 섞여 짜인 그 모형은 석고 모형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그 속으로 석영과 시멘트의 혼합물이 부어진다. 완료된 부분들은 기차로 윌미트(Wilmette)에 운반되어, 한

부분씩 강철 구조 위에 매달았다. 그 돔(Dome)의 외부만도 387개의 부분을 필요로 했다.

### 방문하는 법 (How To Vi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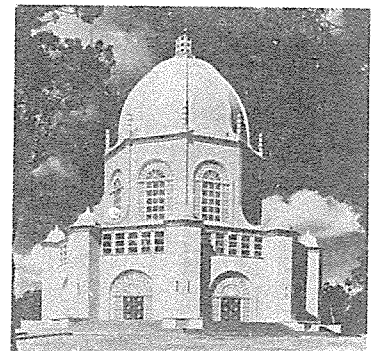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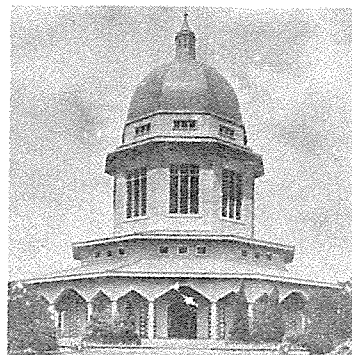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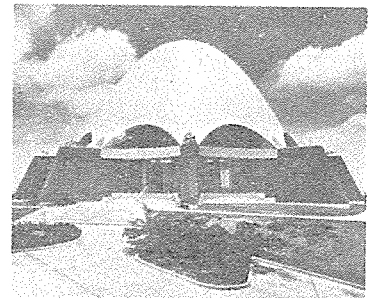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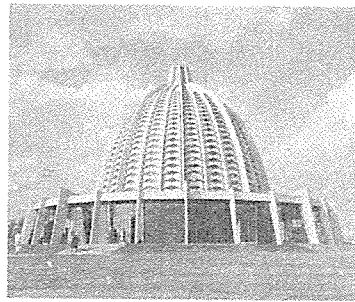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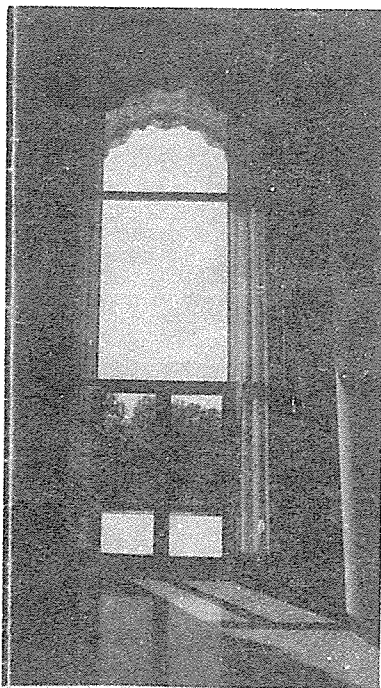
그 예배당은 연중 매일 개방되어 있다. 공중예배는 매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10월 15일에서 5월 14일 사이의 방문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5월 15일부터 여름 기간에는 방문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자유로운 단체 관광객들은 (312)256-4400 교환 15 혹은 16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인들이나 소수의 방문객들의 단체는 사전 예약을 할 필요는 없다.

진열품들과 슬라이드 프로그램들은 바하이 신앙의 기본적인 교훈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자원해서 일하는 안내인들은 책임성 있게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의 강당은 개안의 기도와 명상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 마침내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공동체 안에 바하이 예배당이 있게 될 것이다. 현재는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다섯개가 있고 두개 이상이 계획 중에 있다. 두개 이상이 계획 중에 있다. 아래에 보여지는 사진들은 다음의 지역에 있는 예배당들이다. 시계방향으로 독일의 푸랑크푸르트;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우간다의 캄팔라;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이다. 그리고 계획중인 두 건물은 인도와 서부 사모아에 곧 세워질 것이다.



## 바하이 신앙(The Bahai Faith)

바하이 신조는 19세기 중엽 페르시아에서 생겼다. 창설한 선지자 바하올라(Bahau'llah)는 귀족 집안에서 1817년에 태어났다. 그러나 귀족이라는것이 그에게 안락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그의 생애동안 그는 추방, 고문, 투옥을 당했다. 이는 그의 가르침 때문이었는데 그의 말로는 神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敎訓들 속에서 세계의 모든 共同体들이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또는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그들 所願의 표현을 발견하는데, 이 敎훈들은 다음과 같이 잘 요약되어져 왔다.

“바하올라가 宣布한 啓示는, 그의 추종자들이 믿기로는, 기원에 있어서 神의이고 범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관점에 있어서는 폭넓고, 方法에 있어서 科學的이고, 原理에 있어서는 人間中心的이고, 人間들의 知性과 心情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動的이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신앙의 창설자의 선교란 종교의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신의 계시는 연속성이 있고 점진적이며, 그리고 과거의 모든 종교의 설립자들은 비록 그들의 敎훈들의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찌라도 동일한 장막에 거하고 동일한 하늘 안에 솟아 있고 동일한 왕좌에 앉혀지고 동일한 말을 말하고, 그리고 동일한 신조를 선포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의 이론의 근거는 인간 진화의 전과정의 절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의 유기체적 통일 원리와 동일시되고 운행한다고 그들은 이미 증거해 왔다. 이 엄청난 진화에 있어서 이 단계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접근해가고 있으며 또한 신성하게 수여된 메시지가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天上의

잠재성, 이것을 결여한 것은 아무것도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

바하이 신앙은 神의 통일성과 선지자들의 통일성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리를 주장하고 모든 형태의 미신과 편견을 비난하고 종교의 근본 목적이 일치와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그것은 과학과 병행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평화롭고 질서잡힌 것이며 발전적인 사회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와 특권을 권장하고 의무교육을 지지하며, 빈부의 극심한 차이를 철폐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수행된 일을 예배의 위치에까지 높이고 보조적인 국제언어의 채택을 추천하며, 또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평화의 보호와 확립을 위한 필요기관들을 제공한다.

현재 바하이들은 지구상에서 300처 이상의 나라와 지역과 섬들에 살고 있다. 바하이의 敎훈들과 그러한 敎훈들 안에서 설립된 기관들에 의해서 指導됨으로써 그들은 바하올라에 의해 약속된 세계 평화의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와 그들의 바하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형성된 통일성에 의해서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한 보편적 동거 즉 한 공동신앙”으로 결합하기 위한 바하올라 敎훈의 힘이 살아있는 표본들이다.